

나주 ‘남도음식거리’ 600년 흥어 이야기를 담다

영산포 흥어거리 일대 새단장 마치고 복합 음식관광 명소로 변신
포토존·쉼터·거리 벽화 등 조성…음식점 8곳 위생 실천 서약도

나주시가 600년 전통의 속성흥어 문화를 간직한 영산포 흥어거리를 ‘남도음식거리’로 새롭게 단장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총사업비 10억원(도비 5억, 시비 5억)을 투입해 영산포 흥어거리 일대를 음식과 문화, 쉼터가 어우러진 복합 음식관광 명소로 조성했다.

시는 사업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일 영산포 흥어거리 공영주차장 무대에서 ‘남도음식거리 조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도의원과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 흥어연합회, 영산포발전협의회,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흥어연합회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적극 지원해 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생 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추진돼 더욱 의미를 더한다. 지난해 11월 흥어거리 내 음식점 8개소는 거리 미화의 날 운영, 물정소 정기 실시, 위생적 포장박스 사용, 친절 서비스 제공, 원산지 표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 실천 서약을 체결했다.

기념식에서도 상인들은 서약서를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음식관광 명소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영산포 속성흥어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문화관광형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시설로는 흥어거리 스토리텔링 종합안내판, 입구 상징 캐릭터 ‘흥스타’ 흥어삼합밴드 캐릭

터 포토존, 테마형 휴게쉼터(아트월, 포켓, 그늘막), 거리 벽화, 가로수 수목보호대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머물고 싶은 거리로 거듭났다.

특히 입구에 위치한 ‘흥스타’ 캐릭터는 영산포를 상징하는 대표 마스코트로 향후 남도음식거리 흥어 명품화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흥스타’는 속성흥어를 주제로 한 음악밴드 형식의 캐릭터로 보컬 겸 리더 흥스타(흥어), 키보드를 연주하는 돈돈이(돼지고기), 드러머 주주(배추김치), 기타리스트 리리(막걸리)로 구성했다.

흥어삼합에 재치 있는 스토리텔링을 더한 캐릭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흥미와 재미를 제공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600년 속성흥어의 고장 영산포에 남도음식거리라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세워졌다”라며 “흥어 명품화 사업과 함께 레시피 개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거리로 가꿔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5일 영산포 흥어거리 공영주차장 무대에서 열린 ‘남도음식거리 조성 기념식’에서 참여자들이 새로 만든 ‘흥스타’ 캐릭터를 배경으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유럽 입맛 홀린 ‘담양 쌀’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

‘풍요로운 담양쌀’ 18t 선적식
올 200t 목표 수출 46억원 기대

담양의 대표 농산물 담양쌀이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에 올랐다.

담양군과 담양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담양군·담양농협쌀RPC)에서 2025년 담양쌀 프랑스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김범진 농협중앙회 총회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프랑스 파리로 ‘풍요로운 담양쌀’ 18t이 선적됐다.

담양쌀은 2023년부터 프랑스를 포함해 체코, 미국,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며 해외시장 개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단독으로 200t 수출을 목표로 하며, 수출액은 약 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물류비, 포장재 등 5억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담양쌀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은 올해 쌀 수출을 위해 물류비, 포장재 등 5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역 농산물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NH농협무역을 맡았으며, 현지 수입은 프랑스 파리에 분사를 둔 ‘에이스푸드’가 담당한다.

에이스푸드는 프랑스 내 40여 개 아시아푸드 매



지난 4일 봉산면 담양통합RPC에서 정철원 담양군수,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김범진 농협중앙회 총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담양쌀 프랑스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 <담양군 제공>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곳의 한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 전문기업이다. 담양쌀의 품질에 높은 만족을 보이며 올해도 수입계약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2021년 설립된 담양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관내 7개 농협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담양통합RPC를 중심으로 친환경, 일반 쌀의 도정·유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쌀

매출은 340억 원으로, 학교급식과 가공업체, GS리테일·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쌀의 품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농가소득 향상과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행정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에서 살아볼까?

귀농학교 교육생 현장 교육

장성군이 운영하는 귀농학교가 최근 교육생들과 함께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초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장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은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귀농 생활을 간접 체험했다.

교육생들은 이어 ‘귀농체험동지’ 현장을 둘러봤다. 귀농 희망자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장성군에서 총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장성군 귀농학교는 귀촌 희망자와 전임초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귀농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



장성군 귀농학교 교육생들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매골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영농 기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어 호응이 높다.

박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현장 탐방이 귀농·귀촌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귀농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가루약은 포장지·물약은 용기 밀봉 처리

화순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폐의약품 안전 배출 교육

화순군이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안전한 배출 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복용하고 남아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실수로 복용할 시 약물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하수로 흘려보내거나, 일반 생활폐기물로 함께 버리면 수질오염·토양오염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순군은 교육을 통해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올바른 배출 방법 및 보건소, 보건지소, 관내 모든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홍보,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는 어르신들

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은 알약, 캡슐은 포장지 제거 후 내용물만 모아 처리해야 한다.가루약은 포장지 그대로, 물약은 한 병에 모으거나 용기 그대로 밀봉해 처리하고 안약, 연고는 용기 그대로 새지 않게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몸소 익혀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앞으로도 폐의약품 분리배출이 스스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벤치마킹 줄이는 ‘강진군 출산 정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 20여 명 보건소 방문

강진군이 추진하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이 공무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등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생 20여 명이 지난 4일 강진군보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우수사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양육친화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벤치마킹을 위해 이뤄졌다.

강진군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감면, 강진군 산후조리비(154만 원) 지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생에게 설명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임신 계획 단계부터 출산 후 지원까지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합

계출산율이 2년 연속 전국 2위를 달성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군은 임신 계획 단계에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임신부에게는 ▲엽산제·철분제 지원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지원 ▲안전벨트 대여 ▲자동차 표지 발급 ▲출산용품 등을 각각 지원한다. 출산가정에는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에게 육아수당 월60만 원(최대 504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산후조리비 지원 154만 원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교육생들은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과 청년들의 취업, 주거, 복지, 문화 등을 지원하는 청년지원센터도 방문해 강진군의 인구 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탐구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함평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상 최대 40만원…읍·면사무소서 신청

함평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함평군 등록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 기준 수수료의 0.8%(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된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 인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경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6개월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학교·기관 등 10인 이상 신청

장흥군보건소가 한국말산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금연을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 등 10인 이상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말산업고에서는 총 11명이 참여해 학생의 금연의지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연클리닉은 ▲일산화탄소 측정 ▲1:1 개별상

담 ▲행동강화물품 지원 ▲금연성공 시 기념품 지급 등 청소년기 흡연 습관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다.

지난달 30일에 시작한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물품유학생 8명이 참여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통역교사의 협조로 원활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다문화학생들도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 20세 이상 ‘C형간염 무료 검사’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 방문

담양군이 오는 11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간염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2위 질환이다. 이 중 70~80%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특히 C형간염은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에서 시행 중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은 56세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담양군은 검사

대상을 군민 전체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검사 대상은 담양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이다. 담양읍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C형간염 확진자 가족, 과거 수혈자나 주사기 공동 사용 경험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저하자, 50대 이상 군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권장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